

2020년 3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국제유가 급락과 경기 우려로 하락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일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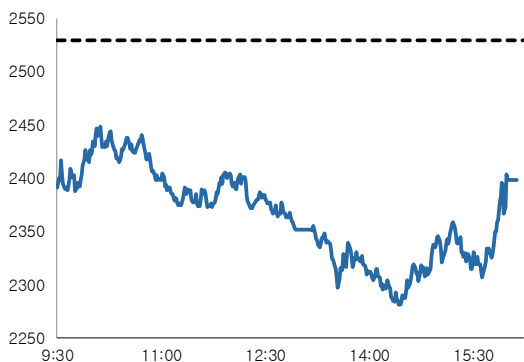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공포, 만기일

미 증시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피해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출발. 특히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 (20 일)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24%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점도 영향. 더불어 미국의 비자업무 중단에 따른 미국발 국경 폐쇄도 불안 심리를 확대. 그러나 장 마감 앞두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일부 축소 하며 마감(다우 -6.30%, 나스닥 -4.70%, S&P500 -5.18%, 러셀 2000 -10.42%)

글로벌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20 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도 7,300 명을 넘는 등 급증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우한 지역을 폐쇄한 이후 각국은 국경 폐쇄를 단행했고, 많은 기업들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는 등 대면 접촉을 줄여나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단행. 문제는 이러한 행동의 여파로 개별 기업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수출 위주의 국가의 경우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를 완화 시키기 위해 연준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정부도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단행 중. 그러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문제의 원인인 코로나 확산도 몇 주 동안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패닉 요인.

여기에 20 일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프로그램으로 추정되는 매매가 국제유가의 급락을 야기 시켰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현금 확보 노력을 확산. 지난 2008 년 12 월 19 일 만기를 앞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급감, OPEC 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포지션 청산과 롤오버 물량이 몰리며 5 거래일 동안 27% 급락했던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 이후 유가는 10 거래일 만에 되돌림. 결국 미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의 여파로 하락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4.86	1,591.20	홍콩항셍	22,291.82	-4.18		
KOSDAQ	-5.75	485.14	영국	5,080.58	-4.05		
DOW	-6.30	19,898.92	독일	8,441.71	-5.56		
NASDAQ	-4.70	6,989.84	프랑스	3,754.84	-5.94		
S&P 500	-5.17	2,398.42	스페인	6,274.80	-3.44		
상하이종합	-1.83	2,728.76	그리스	487.35	-0.93		
일본	-1.68	16,726.55	이탈리아	15,120.48	-1.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금융주 하락 Vs. 시스코, 물류 상승

국제유가 24%나 급락하자 엑손모빌(-10.02%), 세브론(-22.12%)는 물론 코노코필립스(-13.64%), EOG리소스(-3.66%) 등은 급락했다. 한편, 부채가 많은 에너지 기업인 아파체는 0.45% 하락에 그친 가운데 옥시덴탈은 7.14% 하락해 시장 우려와 달리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부분이 패닉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JP모건(-10.53%), BOA(-5.41%), 웰스파고(-5.10%) 등은 물론 에너지 업종 대출이 가장 많은 BOK 파이낸셜(-10.16%) 등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GM(-17.32%), 포드(-10.18%) 등이 급락했다.

반면, 생활 필수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마트(+2.78%)가 상승했으며, 물류 회사인 UPS(+2.55%), 페덱스(+4.97%)가 강세를 보였고, 시스코시스템즈(+4.56%)과 줌 비디오(+6.85%)는 화상회의 매출 급증 기대로 상승했다. 더불어 길리어드사이언스(+6.58%)는 코로나 임상 기대로 월그린 부츠(+6.47%) 약국체인점은 매출 증가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8.91%	대형 가치주 ETF(IVE)	-5.40%
에너지섹터 ETF(OIH)	-13.52%	중형 가치주 ETF(IWS)	-9.02%
소매업체 ETF(XRT)	-7.93%	소형 가치주 ETF(IWN)	-10.57%
금융섹터 ETF(XLF)	-8.49%	대형 성장주 ETF(VUG)	-4.37%
기술섹터 ETF(XLK)	-3.77%	중형 성장주 ETF(IWP)	-7.4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5.80%	소형 성장주 ETF(IWO)	-7.43%
인터넷업체 ETF(FDN)	-2.42%	배당주 ETF(DVY)	-6.78%
리츠업체 ETF(XLRE)	-7.02%	신흥국 고배당 ETF(DEM)	-9.36%
주택건설업체 ETF(XHB)	-10.2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5.49%
바이오섹터 ETF(IBB)	-2.93%	미국 국채 ETF(IEF)	-1.39%
헬스케어 ETF(XLV)	-3.32%	하이일드 ETF(JNK)	-4.27%
곡물 ETF(DBA)	+0.59%	물가연동채 ETF(TIP)	-1.23%
반도체 ETF(SMH)	-8.31%	Long/short ETF(BTAL)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179.94	-14.28%	-28.81%	-56.30%
소재	257.74	-6.16%	-14.34%	-32.16%
산업재	452.86	-7.15%	-17.16%	-36.07%
경기소비재	707.13	-4.93%	-16.79%	-32.54%
필수소비재	568.91	-3.07%	-3.84%	-14.07%
헬스케어	973.71	-3.40%	-8.51%	-19.56%
금융	316.10	-8.85%	-16.22%	-38.67%
IT	1,295.22	-4.59%	-11.47%	-28.11%
커뮤니케이션	142.65	-2.81%	-9.97%	-26.08%
유틸리티	277.16	-4.64%	-9.55%	-21.97%
부동산	180.10	-7.46%	-18.09%	-29.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9.40% MSCI 신흥 지수 ETF 는 8.52%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1,087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0.70pt 상승한 212.3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53.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포 심리 여파로 하락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24% 급락하며 역사상 3 번째 큰 폭으로 하락해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락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포지션 정리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OPEC 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 만기일 앞둔 5 거래일 동안 27% 급락했으나, 만기일 이후 되돌리는 등 만기일 전 후 변동성 확대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제유가 급락은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달러인덱스가 100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인 점, 미국이 모든 비자 업무를 중단 한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미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했다는 점을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시장 부진

미국 2 월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162.4 만건) 보다 감소한 159.9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152 만건)을 상회했다. 주택 착공허가건수는 전월(155 만건)나 예상(150 만건)을 하회한 146.4 만건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4% 급락

국제유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하루 1,200 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했다.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을 감안 포지션 청산과 롤오버 물량이 유입되며 매물이 확산 되었으며 이 결과 역사상 3 번째 큰 24.4%나 급락해 20.34 달러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100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매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파운드화가 영국의 코로나 확산과 그에 대한 대처가 부족, 여기에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영국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달러 대비 4% 내외 약세를 보인 가운데 1985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었으나, 올림픽 취소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1 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예방으로 이러한 부양정책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나, 재무부의 채권 입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으며, 장기물의 상승폭이 컸다.

금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을 매각하는 흐름이 제기되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0.37	-24.42	-38.24	Dollar Index	100.821	+1.25	+4.47
브렌트유	24.88	-13.40	-30.48	EUR/USD	1.0909	-0.80	-3.20
금	1,477.90	-3.14	-10.01	USD/JPY	108	+0.28	+3.31
은	11,772	-5.79	-29.83	GBP/USD	1.1616	-3.64	-9.39
알루미늄	1,650.00	-0.09	-1.49	USD/CHF	0.9673	+0.62	+3.07
전기동	4,745.00	-7.76	-14.18	AUD/USD	0.5791	-3.48	-10.69
아연	1,846.00	-1.34	-7.10	USD/CAD	1.4457	+1.80	+4.92
옥수수	335.25	-2.54	-10.48	USD/BRL	5.1613	+3.07	+7.09
밀	508.25	+1.80	-0.88	USD/CNH	7.0749	+0.61	+1.52
대두	825.50	+0.15	-5.47	USD/KRW	1245.70	+0.18	+4.42
커피	108.30	+5.56	-3.35	USD/KRW NDF1M	1253.00	+1.35	+5.1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185	+10.65	+31.54	스페인	1.216	+18.80	+95.90
한국	1.510	+8.30	+14.50	포르투갈	1.442	+17.90	+103.70
일본	0.081	+6.30	+14.70	그리스	3.801	+18.30	+227.10
독일	-0.235	+19.90	+50.70	이탈리아	2.429	+7.80	+125.60